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4.3.(금) 배포즉시
< 4.4.(토) 조간 > 배포 2026. 4. 3.(금) 18:00

산업부 장관-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개최

- 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부-민주노총 소통 확대 도모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협력 필요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민주노총측의 요청으로 4월 3일(금)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 회동이며, 산업부 장관의 첫 민주노총 방문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정책은 결국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고용 없이는 산업경쟁력의 의미가 없고, 산업경쟁력 없이는 고용도 유지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제조업의 AI 전환(M.AX)도 산업경쟁력을 높여 결국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M.AX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산업부가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극복하고, 개정 노조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노총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건의사항과 산업현장에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업종별 고용유지와 근로 여건 개선 등 관심사를 전달하였다.

산업부는 노사간 신뢰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M.AX, 지역투자 및 고용창출 등에 대해 노총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044-203-42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